



회원사 순례 21세기 우리 회사전략

www.sungbochem.co.kr

성보화학(주)

‘서울농약=다이아톤’ 명성 · ‘정직 믿음 최고품질’ 철학 계승
신농약 1호 ‘KH502’ 자부심 충분, 교육 · 문화기업 이미지 굳혀

‘서울농약’ 농약산업 기치 들어

식량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6.25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농사를 통해 생산된 곡물이 국가 총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800만의 피난민으로 인해 남한의 인구는 급증하였고 경기도 개성 등 곡창지대를 북에 넘겨준 뒤 경지면적의 축소로 배고픔의 탈출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농사를 짓고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약산업의 발전이란 시대적 요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시 성보실업과 유화증권을 경영하던 윤장섭 회장은 1965년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서울농약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이어 1967년

에는 농약을 취급하는 대풍신약주식회사까지 흡수 합병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서울농약은 말만 농약회사이지 일본에서 완제품을 들여다가 판매하는 정도의 사업을 했을 뿐 이렇다 할 주력품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 농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벼멸구, 이화명나방약인 유기인계 「다이아톤」의 합성을 시작, 제품화에 성공함으로써 서울농약의 주력상품으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명실 공히 농약회사로서의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성보화학’으로 사명개칭 단행

1990년 서울농약은 미래 종합화학으로의 비전과 윤회장의 「성보」라는 단일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농약을 ‘성보화학’으로 사명을 바꾸고 힘찬 날개 짓을 하였다. 1985년

12월 성보화학(주)은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대지 13,600평을 매입하여 2,074평의 제2공장을 신축, 새로운 기계시설을 도입하는 등 발전을 거듭했다. 1987년 4월에는 성보화학부설 연구소를 신설하여 이곳에서 신농약 개발과 함께 농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효능실험 등의 본격적인 평가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농약산업은 농업성장의 엔진”이라는 윤장섭회장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농약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성보화학의 농약생산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변화를 주시하고 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더 나아가 농민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전심전력해야한다는 기업철학을 힘주어 강조한다.

차별화된 원제합성기술력, 시장을 품안에

농약산업에 있어 신농약 개발은 고도의 첨단

1호인 KH502(후에 선봉으로 명명)를 개발하여 “신 농약 개발의 개척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국내합성원제 기술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여 다이아톤, 네오아소진 그리고 리도밀 등을 개발하여 농약 수출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농약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로서 “자연과 농약회사 그리고 소비자가 공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대농민 세미나, 전시포 설치, 평가회, 기술센터 방문 등의 직접적인 판촉과 깊은 유대를 통해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친환경농업을 위해 꾸준하고도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교육 · 문화기업의 ‘사회적 책임’다해

1979년 윤장섭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서울농약주식의 일부와 시중은행의 주식 등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성보장학회를 설립하고 이후에 꾸준히 자산이 증가하여 1982년에 성보고등학교,



기술력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1980년 중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시대를 이끌어 가던 성보화학(주)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우리나라 신 농약





1983년에 성보중학교를 완공함으로써 성보의 터전에서 청소년의 동량들이 새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윤회장은 본인소유의 성보화학과 유화증권 등 주식과 토지와 건물 등을 출연하여 조성된 재산의 수익금으로 성보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의 아호로 명명된 '호림박물관'을 1999년 신림동으로 이전 개관하여 문화의 향기와 민족혼을 일깨우고 있다. 이는 "기업이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해야 하며, 어떻게 환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해답을 동시에 제시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보화학(주)의 프로세스 혁명

우리 농업은 지금 적지 않은 위기와 변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 따라서 성보화학(주)는 이러한 세밀한 변화를 주시하고 이를 해결할 솔루션 설정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농업인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고 감동의 차원까지 끌어들이는 발 빠른 전략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나아가 개방형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영자를 양성하고 타 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성, 윈윈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직 · 믿음 · 최고품질’의 CEO 경영철학 이어



1950년 경북태생으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를 졸업하고 농약원제, 정밀화학 제품 합성 및 생산과정 등을 다양하게 거친 현장중심형 전문경영인으로 선임된 박

중영 대표이사는 “윤재천 전 사장님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 안전하고 효과 좋은 작물보호제 공급을 위한 경영철학과 기업 이미지를 계승,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만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생산설비의 개선, 신제품의 개발, 품질관리의 철저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 좋은 작물보호제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떠한 방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정상적인 영업과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